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잠9:10-11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이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마10:28).

눈이 정결하셔서 악과 불법을 보지 못하신다(합1:13).

현시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정도는 뭐?”

성령님의 두려움: 행5의 아나니아와 삽비라(3과 4)

레10: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고전5장의 음행한 자, 곧바로 죽일 것을 바울은 구하였다.

성령 충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충만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두려움(Fear): 400회 이상, terror(공포) 29(단), 15(복)

이 두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300회 이상, 그러므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The fear of the Lord: 30회, 이 중 14회가 잠언에 나옴:

지식의 시작(1:7), 지혜의 시작(9:10), 생명 샘(14:27), 지혜의 훈계(15:33)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한다(8:13).

장수한다(10:27).

확신을 준다(14:26).

죄를 멀리하게 된다(16:6).

생명에 이르게 한다(19:23).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얻게 한다(22:4).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과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

이집트에서 요셉의 고생과 변영의 원인(창39:9, 23)

산과들의 축복(출1:17)

파라오의 문제(출9:29-31)

모세의 리더들 선정(출18:21), 엘리의 아들들의 죄(삼상2:12; 17; 30)

지혜의 시작(9:10), 다른 모든 지혜/지식의 근원

재물/명예/권력/학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영원의 관점에서 허사

세상의 행복도 준다(9:11). 두려움에 따른 행복이 참 행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

1. 무서운 상황에서 공포가 밀려온다(창34의 디나 사건, 디나가 세겔에게 강간을 당함, 디나의 오라비 레위와 시므온이 이들을 속이고 죽임, 이때 야곱에게 닥친 두려운 상황(30)
2.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수24:14)
3. 위대한 광경, 하나님을 보고 경외심에 차서 두려워하는 것(사6:5)
4.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위의 세 요소가 다 들어 있다.

정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주목해서 내려다 보시고 평가하고 계심을 항상 인식하는 것(마12:36; 시139:2; 렘12:3)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계2-3),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고후5:10-11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1. 그분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히11:6). 그분의 파워, 강력, 아름다움, 뛰어난
2.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그분의 두려움이 생긴다(욥42:1-2; 계1:17; 4:11).
3.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잠3:13; 16:16).
 - a.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 b. 죄를 심히 미워하셔서 지옥 불로 심판하신다.
 - c. 심지어 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히12:28-29, 고후5:11
4. 주님을 우리 사상으로 그려내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5. 사람들이 하는 일: 두려움 없는 하나님, 심판 없는 사랑의 하나님(롬1:21-22).
6. 우리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없다(약3:17).

Fear는 타락 이후에 생겼다(창3:10).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없으면 양심이 마비된다.

이것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된다(창20:11, 욥28:8, 아간의 사례).

Fear는 크리스천에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다(성화의 필수 요소, 고후7:1).

성경에 대한 확신, 섬김과 희생, 주께 하듯 한다.

신약 성경: 명사 fear(fobos), 동사 fear(fobeoo), 포비아

포비아: 불안은 특정대상과 결부되지 않는 두려움을 가리키지만, 이것이 특정대상에 결부되었을 때의 두려운 감정은 공포이다. 어느 것이나 정상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종의 강박관념이나 신경질환의 증세로서 나타나며, 때로는 혈관·운동신경 및 내장의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인공포증, 시선공포증(視線恐怖),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져서 만나기를 꺼리는 적면공포증(赤面恐怖症), 끝이 뾰족한 것에 대한 선단공포증(先端恐怖症), 매독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매독공포증, 고소공포증(高所恐怖症), 이성공포증(異性恐怖症), 밀실공포증(密室恐怖症), 특정동물에 대한 동물공포증 등 그 대상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수님은 두려움(공포증)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눅12:7; 32).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 없다(롬8:38-39). 떠나지 않는다(히13:5).

성화가 진행될수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롬8:15; 딤후1:7; 요일4:18).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삶에서 그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존경, 순종, 경배, 기도, 악한 길에서 떠난다.

당신에게는 두려움이 있는가? Yes or no!

성령 충만, 하나님 두려워하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주목해서 내려다보시고 평가하고 계심을 항상 인식하는 것(마12:36; 시139:2; 렘12:3)